

2018년 8월 17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중 무역분쟁 우려 완화에 위험자산 상승 월마트, 시스코 실적 개선 효과로 다우 지수 396pt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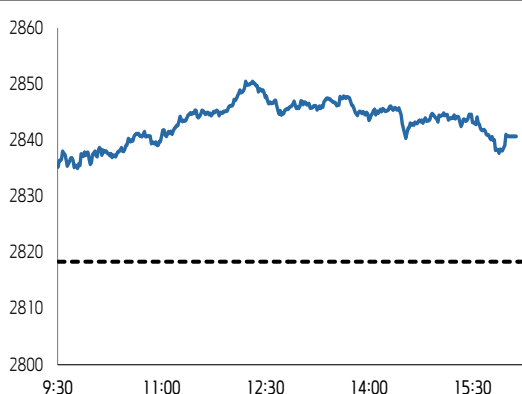
위험자산 선호심리 강화

미 증시는 미-중 무역분쟁 관련 협상을 시작한다고 발표된 이후 상승. 월마트(+9.33%)가 10 년만에 미국 매출에서 가장 큰 증가를 기록하는 등 개선된 실적 발표 이후 급등한 점도 강세 요인. 이에 힘입어 다우지수가 396pt 상승. 다만, 연초대비 상승폭이 컸던 기술주는 차익매물이 출회되며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제한되는 등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장세(다우 +1.58%, 나스닥 +0.42%, S&P500 +0.79%, 러셀 2000 +0.90%)

미 증시는 ①미-중 무역분쟁 관련 협상과 ②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힘입어 상승. 전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초대로 대표단이 8 월 22 일~23 일 미국을 방문해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된 협상을 재개 한다고 발표. 지난 주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의 비밀 협상 이후 다시 재개된다는 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기대감이 높은 상태. 한편, 므누신 장관과 류허 부총리의 비밀 협상에서 논의 되었던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적자 축소, 퀄컴의 NXP 인수 합의, 위안화 절하 문제 등이 이번 협상에서도 주요 의제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 관련 내용이 알려진 이후 상품과 농산물시장이 반등에 성공하고, 보잉(+4.29%), 캐터필라(+3.21%) 등이 급등하며 미 증시 상승을 주도

월마트와 시스코 시스템즈가 실적 발표 이후 급등 한 점도 미 증시 상승 요인. 월마트는 미국 매출이 10년 내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실적을 발표. 더불어 동일 점포 매출 가이드نس를 상향 조정하는 등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임. 특히 주목했던 전자상거래 매출이 전년 대비 40% 급증한 점이 주가 급등의 주요 요인. 그 동안 아마존과의 경쟁을 위해 많은 자금을 투입한 이후 매출로 이어질지 의구심이 있었으나 이를 해소한 점이 투자심리에 도움. 다만, 반도체 업종을 비롯한 기술주는 하락하거나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제한. 이는 연초 대비 상승폭이 컸던 종목군에 대한 매물 출회가 주요 요인. 이번 주 들어 미 증시의 특징 중 하나가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출회였으며, 이는 향후 미 증시 변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주목해야 할 듯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지수동락률(%)	Close	D-1	지수	지수동락률(%)	Close	D-1
KOSPI		2,240.80	-0.80	홍콩항셱		27,100.06	-0.82
KOSDAQ		761.18	-0.10	영국		7,556.38	+0.78
DOW		25,558.73	+1.58	독일		12,237.17	+0.61
NASDAQ		7,806.52	+0.42	프랑스		5,349.02	+0.83
S&P 500		2,840.69	+0.79	스페인		9,427.40	+0.43
상하이종합		2,705.19	-0.66	터키		87,143.21	-3.46
일본		22,192.04	-0.05	이탈리아		20,524.13	-1.8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은행, 산업재가 상승한 반면, 기술주는 부진

월마트(+9.33%)는 양호한 실적과 향후 전망을 상향 조정한 데 힘입어 급등 했다. 타겟(+1.71%), 코스트코(+0.69%), 달러트리(+0.87%) 등도 동반 상승 했다. 시스코시스템즈(+2.96%)도 우호적인 실적 발표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더불어, 미-중 무역분쟁 우려감이 완화되자 보잉(+4.29%), 캐터필라(+3.21%)가 상승한 점도 특징이었다. 한편, 애플(+1.46%)은 애플 페이 매출이 급증하는 등 양호한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며 상승 했다. JP모건(+0.94%), 웰스파고(+1.16%), BOA(+1.19%) 등 금융주는 국제금리 상승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P&G(+1.69%) 등 필수 소비재와 AT&T(+1.91%) 등 통신주, 넥스트라에너지(+1.17%) 등 유틸리티 업종은 터키 이슈가 여전히 시장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했다.

반면, 페이스북(-2.69%)은 CEO에 대한 소송이 진행된다는 소식과 아마존의 온라인 광고 진출 가능성이 제기되자 하락 했다. 알파벳(-0.66%)도 동반 하락 했다. 더불어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넷플릭스(-1.21%) 등과 함께 마이크론(-0.82%), 인텔(-0.61%) 등 반도체 업종도 하락했다.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AMAT(-0.17%)와 N비디아(-0.63%)는 5% 내외 하락을 보이고 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0.95%	대형 가치주 ETF	+1.12%
에너지섹터 ETF	+0.46%	중형 가치주 ETF	+0.87%
소매업체 ETF	+0.34%	소형 가치주 ETF	+0.89%
금융섹터 ETF	+1.33%	배당주 ETF	+1.07%
기술섹터 ETF	+0.44%	변동성 ETF	-5.49%
소셜 미디어업체 ETF	+0.54%	대형 성장주 ETF	+0.56%
인터넷업체 ETF	+0.16%	중형 성장주 ETF	+0.65%
리츠업체 ETF	+0.78%	소형 성장주 ETF	+0.84%
주택건설업체 ETF	+0.49%	신흥국 고배당 ETF	+0.71%
바이오섹터 ETF	+0.77%	신흥국 저변동성 ETF	+0.95%
헬스케어 ETF	+0.98%	하이일드 ETF	+0.17%
곡물 ETF	+1.29%	물가연동채 ETF	-0.06%
반도체 ETF	-0.15%	Long/short ETF	-0.2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32.85	+0.62%	-3.59%	-4.05%
소재	363.45	+0.62%	-2.64%	-0.90%
산업재	635.85	+1.16%	-0.01%	+1.56%
경기소비재	893.72	+0.45%	-1.16%	-0.30%
필수소비재	560.31	+1.52%	+2.22%	+3.96%
헬스케어	1,048.99	+0.92%	+0.82%	+4.35%
금융	465.69	+1.25%	-0.77%	+1.97%
IT	1,276.82	+0.25%	-1.16%	+0.08%
통신	157.17	+2.01%	+2.50%	+6.98%
유틸리티	274.12	+1.12%	+1.74%	+2.64%
부동산	206.95	+0.71%	+0.90%	+2.2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종목별 장세 이어질 듯

MSCI 한국 지수는 1.00% MSCI 신흥 지수도 0.63%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549 계약)에도 불구하고 0.30pt 상승한 288.65pt 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26.8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미-중 무역분쟁 관련 협상 소식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했다. 그러나 글로벌 증시가 관련된 소식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는 등 여전히 기대감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늘 한국 증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중국 국무원이 “합리적인 성장 유도 위해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 이라고 발표하는 등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미 증시에서 반도체 및 기술주가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인 점은 부담이다. 전일 한국 증시에서 전기전자 업종이 외국인의 매도세로 1.45% 하락하는 등 지수 하락을 주도 했기 때문에 여전히 투자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미 증시 마감 후 반도체 장비 업종인 AMAT 와 N 비디아가 실적 발표 후 시간외로 5% 내외 하락하는 등 여전히 전기 전자 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를 감안 오늘 한국 증시는 지수 보다는 개별 종목별 이슈에 따라 변화하는 종목별 장세가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제조업지표 둔화

미국 7 월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115 만 8 천건) 보다 증가한 116 만 8 천 건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시장 예상치(127 만건) 에는 미치지 못했다. 반면, 허가건수는 지난달(179 만 건) 보다 둔화된 172 만 12 천 건으로 발표되었다.

8 월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는 지난달(25.7) 보다 둔화된 11.9 에 그쳤다. 특히 신규주문(31.4→9.9)이 크게 둔화되었다. 다만 경기 동향은 상향(29.0→38.8) 되는 등 심리적으로는 안정을 보였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역외 위안화 환율 달러 대비 1% 가까이 강세

국제유가는 전일 원유 재고 증가 및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감에 하락 했으나 오늘은 미-중 무역분쟁 협상에 대한 기대감과 중국 국무부의 경기 부양책을 높이는 발표에 힘입어 상승 했다. 다만, 여전히 이머징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향후 수요 둔화 가능성이 높아 상승폭은 제한되었다. 더불어 드라이빙 시즌 종료가 다가오며 미국 내에서의 수요 또한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었다.

달러지수는 미-중 무역분쟁 협상 재개 소식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제지표 둔화 소식이 전해지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보합권을 유지 했다. 일본 엔화 및 스위스 프랑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완화되며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한편, 파운드화는 피치가 영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하자 달러 대비 강세폭이 축소되었다. 터키 리라화는 터키 재무장관의 발언 이후 달러 대비 1.5% 내외 강세를 보였고, 역외 위안화는 미-중 무역분쟁 협상 소식에 달러 대비 1% 가까이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미-중 무역분쟁 협상 재개 소식에 힘입어 상승 했다. 그러나 일부 경제지표가 예상을 하회하자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금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완화되고 달러화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자 소폭 하락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미-중 무역분쟁 관련 협상 기대감이 높아지며 3% 내외 상승 했다. 미국의 대두가 3% 넘게 상승 하는 등 농산물 가격은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자 상승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30% 하락 했으나 철근은 0.77%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65.46	+0.69	-2.02	Dollar Index	96.610	-0.09	+1.16
브렌트유	71.43	+0.95	-0.89	EUR/USD	1.1376	+0.27	-1.31
금	1,184.00	-0.08	-2.94	USD/JPY	110.9	+0.14	-0.16
은	14,713	+1.79	-4.84	GBP/USD	1.2715	+0.14	-0.85
알루미늄	2,022.25	-0.14	-2.68	USD/CHF	0.9965	+0.29	+0.29
전기동	5,938.00	+2.36	-4.61	AUD/USD	0.7263	+0.33	-1.49
아연	2,392.00	+4.00	-8.51	USD/CAD	1.3161	+0.15	+0.84
옥수수	379.75	+1.00	-0.78	USD/BRL	3.9029	-0.07	+2.68
밀	562.00	+1.86	-4.18	USD/CNH	6.8632	-1.21	+0.25
대두	897.00	+3.22	-0.77	USD/KRW	1130.10	+0.20	+0.91
커피	105.35	-0.61	-4.88	USD/KRW NDF 1M	1126.80	-0.60	+0.33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870	+0.73	-5.62	스페인	1.440	-0.40	+4.90
한국	2.470	-2.50	-8.50	포르투갈	1.843	+0.70	+8.20
일본	0.102	+0.10	-1.30	그리스	4.293	+5.00	+20.60
독일	0.320	+1.60	-5.50	이탈리아	3.111	-5.00	+21.70